



3·1 마라톤...반세기 돌아 100년 향해 질주

3·1정신 이어받아 평화통일로
전국 3000여명 마라토너들
금남로~영산강 힘찬 레이스

▶관련기사 7·16·17·18·19면

자유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향해 반세기를 달려온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50번째 질주가 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광주일보와 아시아문화가 공동주최한 제50회 3·1절 마라톤대회는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3000여 마라토너들이 광주 도심에서 활력 넘치는 레이스를 펼치며 송고한 3·1정신을 기렸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인 3·1 마라톤을 축하하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정·박해자·장병완·임내현·권은희·이개호 국회의원과 임우진 서구청장·송광운 북구청장·민형배 광산구청장·전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함께 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대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의 축사에 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3·1정신을 기리는 만세삼창으로



만세삼창 1일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등 내외빈들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만세삼창

분위기가 고조됐다. 김여송 사장은 대회사에서 “광복과 민주화가 바로 이곳 광주에서 발화됐다. 광주일보 3·1 마라톤이 역사와 함께하며 반세기를 달려왔다”면서 “광복과 민주주의의 후끈한 바람을 가르며 좋은 기록을 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 광장에서 치러지는 3·1 마라톤 50년을 축하한다”며 “바로 이곳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화합을 위해 달려

달라”고 격려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민주성지 광주에 온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환영한다”며 “모두 즐겁게 완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질주는 오전 8시30분 하프, 10분 뒤 풀코스 출발 총성과 함께 시작했다. 풀코스 우승은 2시간32분31초에 결승선을 통과한 김수용(39·대전)씨가 차지했다. 이정숙(50·전안)씨는 2시간57분05초의 기록으로 풀코스 여자부 5연패를 장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통통제 협조 감사합니다

광주일보는 1일 일부지역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참아가며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광주시, 전남도, 시·도체육회, 광주·전남육상경기연맹,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동부·서부·남부경찰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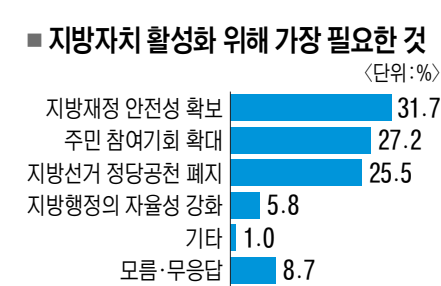
‘열악한 지방재정’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한국지방신문협, 자치 20년 설문
77%가 “서울 집중에 지방 소외”

국민 10명 중 7명은 시장·군수 등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열악한 지방재정’(3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를 최우선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찬성한다’(24.8%)는 응답



의 3배 가까이 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를 비롯해 9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에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만 우리 사회가 서울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했다.

지역일꾼 선출에는 자율성 보장과 더 많은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했다가 번번이 어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67.6%)는 응답이 ‘현행 공천제 유지’(22.7%)라는 응답에 비해 무려 3배나 됐다. 이와 함께 국민은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는 절반 정도(4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박지경기자jkpark@

금남로의 봄을 달린다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3000여 마라토너들은 이날 자유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향해 반세기를 달려온 3·1마라톤을 축하하고, 일제에 맞서 항거했던 선조들의 송고한 3·1정신을 기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신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여자신학원 (여전도사 과정) 모집
- 목회자 심리상담사 과정 모집
- 사모상담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3월 5일 개강

☎(062)605-1112, 1023

조합장 동시선거 현장 ▶5면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신임 대표 인터뷰 ▶20면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2014년 **광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국성 숭실, 광주일고, 서울대 법학과
- 제2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1기)
- 광주지법·광주고법 판사, 부장판사, 순천지법판사
-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장 직무대행
- 광주지법법원장 퇴임(2014년)

변호사 장 병 우 올림

☎ 소속변호사: 이광재 변호사
- 삼성대신 프로젝트사업부, CJ 해외사업팀장
- 광주고법·광주지법 재판연구원, 국선선담변호사

◆ **업무개시**: 2015년 3월 2일(월)
◆ **개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선로 73 동명빌딩 4층(법원 정문 맞은편)
◆ **대표전화**: (062) 236-5333~4 팩스: (062) 236-5336
◆ **개업시간**: 2015. 3. 19(목) 17:00~

HERA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겨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데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외국부담) www.hera.co.kr